■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01-329.
http://doi.org/10.17948/kcs.2019..82.301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白雲 沈大允 易學의 특색*
—새로운 占法과 爻變說 및 先後天說을 중심으로—

조희영(曺喜寧)**

목 차

1. 들머리에—백운의 생애와 사상
2. 백운 역학의 특색
3. 나가면서

국문초록

필자는 조선후기 사상사의 돌출적 존재라 할 수 있는 백운 심대윤의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역학사상의 특색을 셋으로 간추려 보았다. 첫째, 새로운 占法 발명이다. 그가 점법을 발명한 직접적인 계기는 『左傳·襄公 9年』(B.C. 564) '艮之八' 때문이다. 그의 점법은 효불변, 한 효변인 경우는 朱子占法과 같으나 두 효 이상 변할 경우에는 책수 '4'와 나머지 '8'이라는 수를 개입시켜 점단한다. 변한 효의 9, 6의 수를 합산하고 4로 빼서 남는 수가 7이면 본괘 괘사, 8이면 지괘 괘사로 점치고, 5, 6이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여[周而復始] 8에 그치는 효로 점친다. 둘째, 효변설[효변점]이다. 효변설이란 효가 변하는 것으로 양효[노양9]는 음효로, 음효[노음6]는 양효로 변하는 것인데 변

* 본 글은 2018년 11월 16일 한중철학회에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박사후과정.

효를 중심으로 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괘 초구는 초효가 변하여 '乾之姤'가 된다는 것이다. 효변설에 대해서는 다산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다산의 앞 세대인 신후담과 후세대인 백운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독자적으로 동일한 효변설을 주장한 것은 조선역학사에 흥미로운 일이다. 셋째, 선후천설이다. 그는 자신의 역리를 전개하는 길목마다 선후천을 배치한다. 선후천을 자신의 이론 분석 틀이나 논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종국에는 모든 역리를 선후천으로 수렴시킨다. 백운은 선후천으로 태극음양오행을 논하고, 氣數와 象理를 분석하며, 「선천원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64괘를 나름대로 분석한다. 아울러 선후천과 연결하여 중용과 충서를 말하고 심성정을 선후천의 관점에서 논하며 나아가 「하도」와 「낙서」까지도 선후천의 영역으로 귀결시킨다. 그러나 그의 태극관과 음양의 기론에 대해서는 논리의 미흡함이 있다.

주제어: 심대윤, 『周易象義占法』, 점법 발명, 효변, 선후천.

1. 들머리에—백운의 생애와 사상

백운 심대윤(白雲 沈大允, 1806-1872, 이하 '백운'이라 함)의 내력 및 학문적 경향에 대해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1] 그는 혼란하고 시대 상황이 궁핍했던 조선후기 몰락한 소론계 지식인이다. 그는 살기 위해 안성 佳谷에서 木盤과 약을 팔아 노모와 두 형제, 식솔들을 부양하면서 틈틈이 독학으로 경학에 몰두하여 120여 권의 저서를 내었다. 그가 한 말로 그의 삶을 표현하자면 "生於憂患, 長於困窮"이 적절하다. 주위에 이름난 사대부는 없었고 당시 비주류인 강화학파의 후예들이나 소수의 빈한한 소론계 양반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대외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2]

---

1) 장병한, 「周易象義占法 解題」, 『韓國經學資料集成』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 출판부, 1997을 주로 참고한 것임. 백운의 고조부 심수현(1663-1736)은 소론계로 영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으나 증조부 심악(1705-1777)이 이조참판 재직 중 庭試 試卷의 變書事件에 연루되어 逆賊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뒤 가세는 급락하고 그 후손들은 관로가 차단되었다. 부친이 일찍 죽고 재산도 없던 집안의 가장으로 역할이 주어졌다고 한다.

2) 위당 정인보의 조부인 鄭基雨(1832-1890)의 『雲齋遺稿』에 "沈公, 性傲亢, 罕與人接"이란 말이 나온다. 손혜리,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19세기 白雲 심대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9면.

그는 생업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보람과 근로의 희열을 느끼는 한편 유학자의 꼿꼿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는 몰락하고 가난에 찌들던 학자이지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時所에 맞는 변통의 도리로 현실을 헤쳐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가 깊이 체득한 것이 인간의 '慾'의 긍정과 생존에 유익한 '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획득이었다. 그것은 개인에 국한된 私利나 私慾을 뛰어넘는 '與人同利'이며 '福利'였다. 이런 개인의 체득이 자신의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른바 '실학'이나 '근대 자본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끈이 되었고, '이익'과 '도덕'은 대립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그를 평하여 "심대윤은 생애와 사상 양면에서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돌출적 존재"라고 하는 이도 있다.[3]

한편, 그는 시대 혼란의 한 요인으로 천주학의 폐해라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의 정립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사서오경에 대한 주석을 내는 것이었다. 이런 저술작업이 자신의 정체성[土]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 여긴 것이다. 그 작업은 당시 지배사상인 정주학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독자적인 철학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역학관을 결집하여 그의 나이 37세(1842년)에 『周易象義占法』을 짓게 된 것이다.[4] 그의 학문수준에 대해 정인보는 "淸代 戴震(1724-1777)과 비슷하지만 굉사(閎肆)한 면에서 더욱 낫다"고 했다. 그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90년대 중엽부터 극소수가 연구했으며 2005년 『심대윤 전집』이 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5] 이 전집의 해제에서 임형택은 백운을 "한국의 마지막 실학자"라 하고 그 성향을 "양명 좌파적"이라 했다.

---

3) 김문용, 「심대윤의 복리사상과 유학의 세속화」, 『시대와 철학』, 제21권 3호(통권5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2면.

4) 저본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간행, 『韓國經學資料集成』 116 易經 30 周易象義占法, 성균관대 출판부, 1997. 이하 '『상의점법』' 혹은 '이 책'이라 함.

5) 백운에 대한 연구 현황을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보면, 박사학위 5편, 석사학위 7편이며, 단행본 1, 백운집 번역본 1, 학술논문이 40편 이상이다. 대부분 그의 경학 부분과 '복리' 부분, 문학 부분이다. 백운에 대한 연구는 張炳漢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백운의 경학사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2편(1995년 성균관대, 2014년 고려대), 학술논문 20편 이상을 발표했다.

이 책에 대한 연구는 吳東河의 박사학위논문과 張炳漢, 崔廷準・吳東河 공저 논문이 있다.[6] 장병한은 백운의 생애 전반을 소개하면서 백운의 역학은 상수를 중심으로 한 占易이라고 했다. 그의 역학사상은 '利'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하여 천주학의 대응 논리로 역서를 편찬했다고 한다. 아울러 자신의 일신상의 곤궁과 시대의 질곡 및 정주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자신의 역학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오동하 학위논문은 이 책에서 제시한 象數論, 周易解釋方法論, 占法 등을 살펴본 바, 심대윤의 易學은 氣本體論에 입각한 形氣生成의 '先後天', '生分合', '縱橫'의 易學的 구조를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存在論, 心性論, 倫理論, 認識論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그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福利 실현에 있다고 했다. 최정준・오동하 공저 논문은 '讀易十法' 가운데 '爻位'에 대해 논한 것과 심대윤 역학을 형기생성론의 입장에서 고찰한 글이다. 본 글에서는 오동하의 논문과 최정준・오동하의 글을 일부 소개 및 분석할 것이다.

2. 백운 역학의 특색

필자는 이 책에 나타난 백운 역학의 특색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꼽는다. ① '利' 중시 역학사상,[7] ② 변화의 열쇠—선후천, ③ 讀易十法,[8] ④ 爻變說, ⑤ 새

6) 오동하,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沈大允의 易學思想硏究」, 동방문화대 박사학위논문, 2017; 장병한, 「白雲 沈大允의 『周易象義占法』에 대한 일고찰 : 19세기 天主學說에 대한 儒學의 대응과 극복의 관점에서」, 『韓國思想史學』 제33집, 한국사상사학회, 2009, 253-279면; 최정준・오동하 공저, 「백운 심대윤(白雲 沈大允)의 독역십법(讀易十法)에 관한 연구 : 효위법(爻位法)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52집, 한국사상사학회, 2016, 303-333면; 「沈大允 形氣生成論의 역학적 구조」, 『栗谷學硏究』 제36집, 栗谷硏究院, 2018, 137-169면.

7) 백운의 '利' 중시 사상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건괘 '元亨利貞'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元也者, 始此者也. 亨也者, 長此者也. 利也者, 成此者也, 貞也者, 守此者也. 此者何也. 利也. 天地之所以存, 人物之所以立, 利而已矣, 一日無利, 則天地息而人物盡矣." 원과 형과 정이 모두 '利'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한시라도 '리'가 없으면 천지 인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리' 중시 사상의 경전적 근거로 그는 ①"論語[子罕]曰, '子罕言利與命與仁.' 言利乎命與仁之先, 亦可見利之至大也."; ②"孟子[이루 하]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 以利爲本.'"; ③『子思子全書』 "子思曰, '仁義固所以利之也.'"; ④"國語曰, '利天地之所載. 又曰, 言義必及利. 又曰, 義以生利.'"; ⑤"文言曰, '利者義之和也.'" 등을 든다. 백운이 말하는 '리'는 '同利'로 '더불어 함께 이로움'의 의미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利之爲物, 私之則爲邪爲慾, 公之則爲仁爲義. 專利則不利, 同利則乃利. 利者, 人之所以生, 而亦所以亡

로운 占法 개발, ⑥ 象數과 占筮로 역리 도출. 백운의 역학사상 전반을 한 편의 논문에 다 담을 수 없기에 본 글에서는 '새로운 점법 개발, 효변설, 변화의 열쇠—선후천' 이 셋을 다룬다. 특히 선후천의 확대적용부분을 자세히 분석한다. 관련되는 부분은 신후담과 정약용의 이론과도 비교한다.

1) 새로운 占法 개발

점법을 먼저 택한 이유가 있다. 이 점법은 당시 점법인 朱子占法과 다르고 茶山 丁若鏞(1762-1836, 이하 '다산'이라 함)의 점법과도 다른, 백운만의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비교표를 먼저 만들어 본다.

■ 주자・백운・다산의 점법 비교

구분	주자점법[9]	백운	다산
효 불변	本卦 卦辭로 점단.[10]	좌동	좌동
한 효변	본괘 變爻로 점단.[11]	좌동[12]	좌동
두 효변	본괘 변효 중 윗 변효 위주 점단.[13]	1) (動爻가) 두 개 이상일 경우 老陽은 9, 老陰은 6을 적용하여 동효의 수를 합하여 乾4로 빼서 8에 이르면 그친다. 8에 이르러 그치는 것은 坤4[14]와 합했기 때문이다.[15] 2) 남는 수가 8을 넘을 경우 반드시 4로 빼면 그 남는 수는 혹 8이나 7이나 6이나 5가 될 것이다. (…) 8이 남으면 之卦 卦辭로 점치고, 7이 남으면 本卦 卦辭로 점단한다.[16] 3) 남는 수가 5, 6이면 아래로부터 위로 동	1) 두 효 이상 변할 경우는 주역점이 아닌 夏나라, 商나라 점법임. 2) 변효 하나를 구하기 위해 11,520개 竹策 이용(萬數策)
세 효변	본괘, 之卦 卦辭로 점을 치지만, 卦變圖에 의거 지괘가 前10괘에 해당하면 본괘[貞] 괘사 위주 점단, 後 10괘에 해당하면 지괘[悔] 괘사 위주 점단.[18]		

也, 物之所以殖, 而亦所以殘也."『상의점법』, 26-27면.

8) '독역십법'은 백운이 바라보는 역 해석에서 핵심적 유의사항 10가지이다. "凡讀易之法, 一曰卦名, 以二體之象知其所以命. 二曰卦義, 以卦象卦才知其義, 卦義不明, 則彖爻皆不可知, 卦義既明然後乃可解也. 三曰卦道, 以卦德知其性. 四曰卦用, 以互卦知其用. 是四者既通, 然後彖辭可知也. 彖辭既通, 然後爻辭可讀也. 五曰卦變, 以本之二卦合而斷事情. 六曰卦位, 初庶人也, 二庶僚也, 三侯牧也, 四大臣也, 五人主也, 六師傅及君父之老而不聽政也. 七曰卦時, 初事之始也, 二三四五以次漸深, 而至六則終也. 八曰爻位, 初三五爲剛位, 二四六爲柔位, 凡居剛者用力, 居柔者不用力也, 察其所安以知其情. 九曰爻象, 以卦爻之象交互綜錯, 識其名物事爲, 向背輕重之用. 十曰繫辭, 以卦爻之辭比校推移, 以究其文理之互相發明." 이 법에 대해 자평하기를 "이 열 가지가 갖추어져야 길흉의 이해와 悔吝과 허물을 두려워하는 까닭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이에 천지의 이치와 성인의 실정과 만물의 변함을 볼 수 있다. 천하의 일에는 반드시 이름과 의미와 도리와 용도와 변함과 자리와 때와 실정[位]과 형상과 말이 있으니, 비록 성인이 지은 역이라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상의점법』, 30-32면; 오동하, 앞의 글, 96면 참조.

네 효변	지괘 불변효 둘 중에서 아래 불변효 위주 점단.[19]	효를 셈하여 돌고 다시—周而復始—[4로 빼는] 계산을 시작하여 [8에서] 그치는 효로 점단한다.[17]	
다섯 효변	지괘 불변효로 점단.[20]		
여섯 효변	乾卦는 用9, 坤卦는 用6으로 점치고, 나머지 괘는 지괘 괘사로 점단.[21]	乾卦는 用9, 坤卦는 用6로 점치나, 나머지 괘는 위의 방법으로 점단.	건곤만 용9용6 인정

주자와 백운의 가장 큰 차이는 두 효 이상 변했을 경우이다. 효가 불변이나 한 효만 변했을 경우는 같다. 이는 다산도 마찬가지다. 주자는 두 효변의 경우 본괘 윗 변효 위주로 점치고, 세 효변의 경우 본·지괘를 종합적으로 보지만 卦變圖에 의해 분류된 前·後 10괘로 나누어 점친다. 네 효변의 경우 지괘 불변효 중 아래 효 위주로 점친다.[22] 다섯 효변은 지괘 불변효로, 여섯효

9) 朱熹, 「易學啓蒙·考變占第四」, 『性理大全』, 학민문화사, 1989, 1163-1176면; 김진근 옮김, 『역학계몽』, 청계, 2008, 347-374면. 이하 전자는 '『易學啓蒙』'으로, 후자는 '『역학계몽』'이라 함.

10) 『易學啓蒙』, 1167면. "凡卦六爻皆不變, 則占本卦彖辭, 而以內卦爲貞, 外卦爲悔."; 『역학계몽』, 355면.

11) 『易學啓蒙』, 1168면. "一爻變, 則以本卦變爻辭占也."; 『역학계몽』, 358면.

12) 『상의점법』, 45면. "凡占一爻動, 則占其爻."

13) 『易學啓蒙』, 1169면. "二爻變, 則以本卦二變爻辭占, 仍以上爻爲主."; 『역학계몽』, 361면.

14) 건곤이 함께 4를 쓰는 이유에 대해 백운은 陰陽四象의 數이기 때문이라 한다. 『상의점법』, 45면. "夫用九用六者, 先後天交合而爲數與理之用, 故乾坤俱用四焉, 即陰陽四象之數也. 故揲蓍以四, 而四營成易. 二老二少之策數, 皆以四乘之也."

15) 같은 책, 45면. "凡占一爻動, 則占其爻. 自二爻動, 以上, 陽用九陰用六, 合卦中動爻之數, 而以乾四除之至八而止, 至八而止者, 合坤四之數也."

16) 같은 책, 45면. "剩數溢于八, 則必以四除之, 其剩數或八或七或六或五焉. 乾數常盈而坤數有盈虧者, 陰陽日月盈虧之義也. 剩數八則占之卦彖辭, 七則占本卦彖辭. 卦之六爻當六數, 李彖當七, 而之彖當八也." 6은 괘의 六爻, 7은 본괘 괘사, 8은 지괘 괘사에 배분한다. 6이 周而復始의 기준점이다.

17) 위와 같은 면. "剩數六與五, 則自下而上數動爻, 周而復始, 占其所止之爻也."에서 필자는 '其所止之爻'를 남는 수가 5, 6인 경우, 다시 아래 동효의 수[9나 6]를 차례대로 더하고 4를 빼서 8이 산출되는 효로 본다.

18) 『易學啓蒙』, 1170면. "三爻變, 則占本卦及之卦之彖辭, 而以本卦爲貞, 之卦爲悔. 前十卦主貞, 後十卦主悔."; 『역학계몽』, 362면.

19) 『易學啓蒙』, 1171면. "四爻變, 則以之卦二不變爻占, 仍以下爻爲主."; 『역학계몽』, 365면.

20) 『易學啓蒙』, 1172면. "五爻變, 則以之卦不變爻占."; 『역학계몽』, 366면.

21) 『易學啓蒙』, 1173면. "六爻變, 則乾坤占二用, 餘卦占之卦彖辭."; 『역학계몽』, 368면.

22) 두 효변에서는 윗 변효 위주, 두 개의 불변효에서는 아래효 위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주자는 "凡變須就其變之極處看, 所以以上爻爲主. 不變者是其常, 只順其先後, 所以下爻爲主. 亦如陰陽老少之義. 老者變之極, 少者只順其初."라 했다. 變은 극처(위)를 보고 不變은 순서를 따른다(아래)는 것이다.

모두 변할 경우 지괘 괘사로 점친다. 단, 건곤괘의 경우 건은 용9, 곤은 용6으로 점친다. 이에 비해 백운은 두 효변 이상일 경우는 아래의 설명과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變의 결과 四象의 策數가 老陰6(9, 8, 8), 少陰8(5, 4, 8), 少陰8(5, 4, 8), 老陽9(5, 4, 4), 老陰6(9, 8, 8), 少陰8(5, 8, 4)로 나왔다면 本卦가 雷地豫卦(䷏)가 되고, 초효, 사효, 오효가 변하여 之卦는 水雷屯卦(䷂)가 된다. 이처럼 세 효가 변하면 주자점법은 본괘인 예괘와 지괘인 둔괘의 괘사를 함께 살피지만 점단은 괘변도의 前·後 10괘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이는『역학괘몽』맨 뒤 부록 편 괘변도에 나온다. 괘변도에서 예괘에서 둔괘로 변하는 경우를 찾아보면 前10괘에 해당되어[23] 본괘인 예괘의 괘사 "豫, 利建侯行師[예는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출동함이 이롭다]" 위주로 점치게 된다. 백운의 경우는 동효에다 9, 6을 적용하여 합산한 수에서 4씩 빼서 8이 되면 지괘 괘사로, 7이 되면 본괘 괘사로 점친다. 남는 수가 5, 6인 경우 다시 아래의 변효로부터 다시 계산하여[周而復始] 합산한 수에서 4를 빼서 나머지가 8이 될 때까지 계속 계산하여 8이 되는 효로 점친다. 위의 예에서 본괘 동효에 양9 음6을 적용하여 합산 한 수는 6+9+6=21이다. 4씩 빼면 21-4-4-4-4=5로 8이 아니다. 다시 아래 동효 초육부터 셈해보면[周而復始] 5+6=11-4=7로 역시 8이 아니다. 두 번째 동효 구사의 9를 더하면 7+9=16-4-4=8이다. 따라서 예괘 구사효 "九四, 由豫, 大有得, 勿疑, 朋盍簪[구사는 말미암아 기쁨이라. 크게 얻음이 있으니 의심하지 않으면 벗들이 모여든다]"로 점단한다. 여기서 만약 초효와 사효 두 효만 변했다고 가정하면 6+9=15-4-4=7이다. 이런 경우는 본괘인 예괘 괘사로 점친다. 상효가 노양9로 변하여 모두 네 효가 변했다면 계산은 6+9+6+9=30이고, 30-4-4-4-4-4-4=6이다. 남은 수가 6이므로 아래효로부터 다시 계산하여, 초육의 6을 더하면 6+6=12-4=8이다. 따라서 본괘인 예괘 초육 효사 "初六, 鳴豫, 凶[초육은 기쁨을 울림이니 흉하다]"로 점친다.[24] 다른 예로, 1, 2, 3효가 노양9라면 9

23)『易學啓蒙』, 1186면;『역학계몽』, 384면.

24) 이 부분에 대해서『한국주역대전』DB는 약간 다르다. 즉 효위에 9, 6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초, 삼, 오효[양위]가 변하면 실제 음양효를 불문하고 9를 적용하고, 2, 4, 상효[음위]가 변하면 무조건 6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9+9=27-20(4×5)=7로 본괘 괘사로 점단한다.[25] 다섯효, 여섯효변도 같다. 단, 건곤괘는 용9 용6에 의한다.

다산의 경우는 두 효 이상 변할 경우 하나라, 상나라 점법으로 보고 『주역』으로 점단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다산은 다효변일 경우 변효 하나를 확정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萬數策'을 이용한 별도의 방법[11,520개 竹策 사용]으로 점단한다.[26]

백운의 점법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왜 남는 수가 '8'에 그치는 효로 점단하는가? 그치는 수 '8'에 대해서 그는 乾의 4와 坤의 4를 합쳐서 8이라 했다. 건4 뿐 아니라 곤4도 함께 쓰는 이유는 陰陽四象의 수이기 때문이라 했다. 즉 건곤에 4를 배당한 이유는 음양사상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에는 四時, 설시할 때로 4로 하는 등 복합적인 의미도 감안했으리라고 본다. 그럼 왜 건곤인가? 그는 건이 역을 다스리고 곤은 이를 도와 이루기[27] 때문에 건4, 곤4을 합해 8이라고 한다. 남는 수가 7이면 본괘 괘사, 8이면

---

25) 나머지가 5, 6인 경우 오동하는 필자와 달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剩數六與五, 則自下而上數動爻, 周而復始, 占其所止之爻也.'에 대해 "'어떤 수'를 가지고 動爻만을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세고[逆數] 다시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세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떤 수'가 멈춘 動爻를 점의 판단근거로 정한다. 그런데 심대윤은 무엇을 가지고, 즉 '어떤 수'를 가지고 周而復始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占爻之法」의 난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문제는 「占爻之法」 과정 안에서 추정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占爻之法」의 계산과정 중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것은 ①나머지 수 '5'와 '6' 또는 ②'動爻合數'이다. 먼저 ①을 살펴보자. 가령 動爻가 다섯이거나 또는 여섯일 때 '나머지 수 '5'나 '6'으로 動爻를 세면 무조건 五爻나 上爻에서 셈이 끝나기 때문에 '周而復始'의 조건은 만족되지 못한다. 따라서 '周而復始'가 계산과정의 필수조건임을 인정하면 '어떤 수'는 최소 '6'보다 큰 수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는 '動爻合數'ㅡ'動爻合數'는 최소 12(6×2)에서 최대 54(9×6)ㅡ뿐이므로 '어떤 수'는 '動爻合數'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5와 6을 동효의 아래부터 차례대로 세어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동효로 점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네 효변(9×2+6×2=30)에서 30-24=6인 경우, 동효 아래부터 하나하나 셈하고 周而復始하여 두 번째 동효가 6번째가 되므로 두 번째 동효로 점친다는 것이다. 오동하, 앞의 글, 116-128면 참조. 필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오동하의 주장이 맞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같은 글, 126면 "〈표 15〉「占爻之法」分析" 가운데 '판단' 부분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재검토를 요한다.

26) 「蓍卦傳」, 『周易四箋』 참조. 다산 점법은 신명종, 「『주역』 점서법과 현대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68-74면, 97-99면, 109-113면; 장정욱, 「『주역』의 구성체제와 역상의 상징체계 : 다산역학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133-164면 참조.

27) 『상의점법』, 45면. "乾四除之至八而止, 至八而止者, 合坤四之數也. 除之以乾數而剩之, 則合坤數者, 卽乾之爲政於易, 而坤以助成之義也."

지괘 괘사, 5, 6이면 동효수로 周而復始하여 그치는 효로 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운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 "8이 남으면 之卦 卦辭로 점치고, 7이 남으면 本卦 卦辭로 점단한다. 괘의 육효는 6수에 해당하고, 본괘 괘사는 7에 해당하며, 지괘 괘사는 8에 해당한다[剩數八則占之卦彖辭, 七則占本卦彖辭. 卦之六爻當六數, 本彖當七, 而之彖當八也.]"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8은 변의 극수이니 변한 지괘로 점단하고, 6은 육효의 수로 周而復始의 기준수이고, 7은 불변수이니 변하지 않은 본괘로 점단하며, 5는 6이하로 周而復始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하나는 백운은 왜 이런 점법을 새로 발명했을까?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점법을 발명한 이유에 대해서이다. 『좌전』에 나오는 "艮之八"[28]의 해결책으로 이 점법을 개발한 듯하다.[29]

---

28) 『左傳』 襄公9年(B.C. 564). "목강이 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목강이 처음 동궁으로 갔을 때 시초점을 치니 艮卦(䷳)가 八로 변한 괘를 만났다. 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艮卦가 隨卦(䷐)로 변한 것입니다. 隨는 나가는 뜻이니, 君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 하니, 목강이 말하기를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주역』에 「隨는 크게 형통하여 바름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元은 몸체의 으뜸이고, 亨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利는 의로움의 화합함이고, 貞은 사물의 근간이다. 仁을 체현하면 사람들의 으뜸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임은 禮에 부합할 수 있고, 만물을 이롭게 하면 의리와 조화될 수 있고, 성실하고 견고하면 일을 주간할 수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隨卦를 만나 허물이 없지만 지금 나는 부인으로 난에 함께하였고, 본래 아래 자리의 신분으로 不仁을 저질렀으니 '元[나라의 어른]'이라 할 수 없고,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니 '亨'이라고 할 수 없고, 사건을 일으켜 자신을 해쳤으니 '利'라고 할 수 없고, 소군의 지위를 버리고서 간음하였으니 '貞'이라 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덕이 있는 사람은 수괘를 만나 허물이 없지만 나에게는 네 가지 덕이 없으니 어찌 수괘의 괘사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 하였다.[穆姜薨於東宮, 始往而筮之, 遇艮之八. 史曰, 是謂艮之隨. 隨其出也, 君必速出. 姜曰, 亡. 是於周易曰, 隨元亨利貞, 無咎. 元體之長也, 亨嘉之會也, 利義之和也, 貞事之幹也. 體仁足以長人, 嘉德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然故不可誣也, 是以雖隨無咎, 今我婦人, 而與於亂, 固在下位, 而有不仁, 不可謂元, 不靖國家, 不可謂亨, 作而害身, 不可謂利, 棄位而姣, 不可謂貞. 有四德者, 隨而無咎, 我皆無之, 豈隨也哉. 我則取惡, 能無咎乎. 必死於此, 弗得出矣.]"

29) '艮之八'은 艮卦(䷳)의 1, 3, 4, 5, 6효 다섯효가 변하여 隨卦(䷐)가 된 것이어서 '艮之隨'라 했다. 이 경우 주자점법에 의하면 之卦 불변효로 점쳐야 되는데 실제 좌전의 점단은 之卦인 수괘 괘사로 점을 쳤다. 따라서 주자점법이 좌전과 다른 것이다. 『易學啓蒙』, 1172면에 나온 내용은 "五爻變, 則以之卦不變爻占. 穆姜徃東宮, 筮遇艮之八. 史曰, '是謂艮之隨'. 蓋五爻皆變, 唯二得八, 故不變也. 法宜以'係小子,失丈夫'爲占, 而史妄引隨之彖辭以對, 則非也. 朱子曰, 艮之隨, 惟六二一爻不變, 餘五爻盡變. 變者, 遇九六也. 不變者, 遇八也. 筮法以少爲卦主. 變者五而定者一, 故以八爲占."이다. 주자는 艮卦(䷳)의 1, 3, 4, 5, 6효 다섯효가 변하여 隨卦(䷐)가 되었다면 占法은 적은 것—여기서는 隨卦 불변 육이효—로 점을 쳐야 하니 육이효의 四象數 8을 표시하여 '艮之八'이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隨卦 육이효[係小子,

"춘추전의 '艮之八'이 이것이다[春秋傳艮之八是也.]"란 자신의 말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다음의 말로 자신의 점법에 대해 보충 설명한다.

> 주자의 『본의』와 여러 책에 각각 효로 점치는 법이 있지만 모두 "간괘의 팔이 다[艮之八]"란 점단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증명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쭙잖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하여 이런 점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점치는 일에 차분히 실험해 보면 [적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30)

『좌전』과 『국어』에 나오는 20여 개의 점례는 경전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占으로 『주역』의 원의가 잘 보존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점례의 시기는 B.C. 672-B.C. 486년 사이로 『주역』이 성립된 시기와 가깝기 때문에 한대 상수학—맹희의 괘기설과 12벽괘, 경방의 납갑, 정현의 효진, 우번의 방통설 등—등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몇몇 점례는 명쾌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 논란이 많은 대표적인 것이 이 '艮之八'이다. '艮之八'은 많은 역학자들에게 숙제를 던져 역학 발전의 계기가 될 정도로 역학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고, 특히 점법 개발을 촉진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백운도 그 대열에 동참하여 주자점법을 비롯한 여러 점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점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艮之八'에서 촉발된 점법 개발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31) 그럼 백운의 점법이 '艮之八'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백운 자신이 자신

失丈夫]로 점치지 않고 隨卦 괘사[隨, 元亨, 利貞, 无咎]로 점친 사관이 잘못한 것[非也]이라고 했다. 주자의 이런 해설을 적잖은 학자들이 납득하지 않고 주자점법과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산이고 또 백운인 것이다. 이 점례에 대해 杜預(222-284, 삼국시대 魏人)가 주석하기를 "연산과 귀장의 두 역은 7, 8로 점을 쳤다[二易, 皆爲七八爲占]"라 하여 연산 귀장역의 점법으로 돌렸다. 두예의 견해에 孔穎達 등이 비판했다. 다산은 두예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 한다. 이처럼 '艮之八'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인, 「丁若鏞의 『春秋官占補註』의 '夏商之舊法'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出土易學자료의 관점에서 본 『連山』·『歸藏』의 筮法」, 『退溪學報』 제131집, 退溪學硏究院, 2012, 161-190면; 「춘추시대 관점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茶山學』 제2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209-240면 참조.

30) 『상의점법』, 46면. "朱子之義及雜書, 各有占爻之法, 而皆不合, 於艮之八占之, 亦不驗. 故妄以私意臆度, 而爲此說, 徐驗之於筮事, 則可知矣."

31) 대표적으로 高亨(1900-1986)의 점법 개발이다. 고형·이경지·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23-56면; 신명종, 앞의 글, 74-81면, 99-109면 참조.

의 점법으로 '艮之八'을 풀지 않았기에 백운의 속을 알 수 없으나, 계산해 보면 당시 사관의 점단과 맞기는 하다.[32] 생각건대 백운의 말대로 백운의 점법을 점사에 차분히 적용하여 그 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덧붙이면 같은 점사에 백운점법과 주자점법을 같이 적용하여 상호 비교 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효변설

효변설이란 효가 변하는 것으로 양효[노양9]는 음효로, 음효[노음6]는 양효로 변하여 변괘가 되고 변효를 중심으로 점단한다. 즉 효변으로 『주역』을 해석하고 점단함을 말한다. 이 설은 '효'에는 '변'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본다.[33] 즉, 효사의 첫 머리수 구[9], 육[6]은 변화를 내포하여, 9는 음으로, 6은 양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효변설에 대해 과거 다수의 학자들은 조선에서는 다산만이 주장한 것이라 했으나, 최근의 연구는 성호학파의 선배격인 하빈 신후담(河濱 愼後聃, 1072-1761, 이하 '하빈'이라 함)도 효변으로 주역을 해석한 것이라 했고, 또한 하빈과 다산의 효변설을 상호 비교하기도 했다.[34] 그런데 다산의 후세대인 백운도 효변으로 주역을 해석하였다. 이 세 명은 전승관계도 아니고 삶의 이력도 전혀 다르다. 하빈과 다산은 성호학파라는 접점이라도 있지만 백운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어쨌든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역학에 매진하여 흥미롭게도 같은 효변설을 주장한 것이다. 주자도

32) 백운점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간괘(䷳)의 1, 3, 4, 5, 6효가 효변하여 수괘(䷄)가 되었다. 9, 6으로 아래 변효 순서대로 합산해 보면 6+9+6+6+9=36이다. 36-4-4-4-4-4-4-4=8이다. 남는 수가 8이면 지괘인 수괘 괘사로 점단한다. 좌전의 사관이 수괘 괘사로 점단한 것과 맞다. 주석 29)에서 보듯 주자는 수괘 괘사로 점단한 사관이 잘못되었고 지괘 불변효인 수괘 육이효로 점단해야 한다고 했다.

33) 그 근거는 「계사전」 上 3장. "爻者, 言乎變者也."이다.

34)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21-24면;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하며」, 『한국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7-67면;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3)—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5-61면.

효변으로 점을 쳤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효변설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35] 물론 이 세 명의 학설이 속속들이 합치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점에서 이들을 '효변학파'라 하고 '조선역'의 한 유파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36] 아래는 백운이 효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① 무릇 효가 움직인[動] 후에 효로 점칠 뿐이니, 효가 움직이지 않으면 점 칠 수 없다. 효가 움직인 후에 占辭가 있을 뿐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점사도 없다. 그러므로 『역』은 오직 구와 육을 취하여 효에 명한 것은 효가 움직이면 곧 점을 칠 뿐이고, 움직이면 점사가 있을 뿐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전』에 점치지 않고 『역』을 인용해서 어떤 괘가 어떤 괘로 변한 것이라고 말하니,[37] 그 움직여서 변하지 않으면 점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② 대개 양효가 변하면 음이 되고, 음효가 변하면 양이 되는데, 가령 점을 쳐서 건괘(䷀) 초구가 동하는 점괘를 만나면, 변하여 姤卦(䷫)가 된다. 건괘는 本卦이고 구괘는 之卦이며 이 본괘와 지괘 둘의 의미와 상을 함께 취하여 이해와 길흉의 점사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선천과 후천의 체용의 뜻이다.[38]

---

35) 효변으로 점을 치는 것은 주자도 인정했다. 『역학계몽』 4장인 '考變占'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자가 말하는 효변점[變爻占]과 여기서 말하는 효변설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효변설'은 예를 들면, 坤卦 初六의 경우 곤괘 초효가 효변하여 復卦가 된 '坤之復'으로 보고 易을 해석 및 점단한다. 주자도 변효로 점을 치지만 이 경우 곤괘 초효가 효변한 '坤之復'으로 보지는 않는다. 원래 이 '효변설'은 宋末 사람인 丁易東이 구분한 역학 12類派의 하나인 '以變論易' 類의 논거이며 송대 都潔, 沈該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한다. 丁易東, 「易統論」, 『易象義』;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2, 41면. 이 설은 도결과 심해에서 元代 陳應潤, 明代 黃道周, 淸代 包儀로 이어졌고, 도결의 효변론이 다산 효변론의 先河라고 한다. 임재규, 「정약용 효변설의 연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다산학』 제2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332-358면. 그러나 이 설이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근거나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 주장하는 내용이 동일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하빈 등은 중국의 '효변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조선의 '효변설'을 이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희영, 「訓民正音制字解에 함유된 宋代象數易과 朝鮮易一『皇極經世書』, 『太極圖說』, 『易學啓蒙』을 중심으로一」, 『東方學誌』 제184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143면.

36) 이하 세 명을 칭할 때 '효변학파' 혹은 '효변파'라 한다. 이는 필자가 이름 붙인 것이다.

37) 점치지 않고 『주역』을 인용한 경우는 5개의 사례가 있다. ①"魯宣公6年(BC603), 王子伯廖之語, 豐之離上六變." ②"魯宣公12年(BC597), 知莊子之語, 師之臨初六變."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인, 「춘추시대 관점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茶山學』 제2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209-240면.

38) 『상의점법』, 29-30면. "① 凡爻動而後占爻耳, 不動則不占. 動而後有辭耳, 不動則無辭. 故易獨取九六以命爻者, 明爻動而乃占耳, 動而乃有辭耳. 故春秋傳不筮而引易亦曰, '某卦之某卦', 明其不動而變則無辭也. ② 凡陽爻變則爲陰, 陰爻變則爲陽, 假令筮遇乾卦初九動, 而變則爲姤. 乾爲本卦姤爲之卦, 乃兼取本之二卦之義與象, 而利害吉凶之辭生焉, 此亦先後天體用之義也."

위에서 백운은 "효가 움직인 후 효로 점칠 뿐이니, 효가 움직이지 않으면 점칠 수 없다"라 하고 또 "효가 움직인 후 점사가 있을 뿐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점사도 없다"라 했다. 그래서 "양효가 변하면 음이 되고, 음효가 변하면 양이 되는데, 가령 점을 쳐서 乾卦 初九가 동하는 점괘를 만나면, 변하여 姤卦(䷫)가 된다. 건괘는 本卦이고 구괘는 之卦이며 이 본괘와 지괘 둘의 의미와 상을 함께 취하여 이해와 길흉의 점사가 생겨난다"라 했다. 이는 효변으로 『주역』을 해석하고, 또 『주역』은 9와 6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효변이 아니면 점사도 없다는 뜻으로 백운은 전형적인 '효변설'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괘 육이효를 통하여 '효변학파'들의 역 해석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 본다.

예괘 육이 효사는 "六二, 介于石, 不終日, 貞吉[육이는 절개가 돌과 같아 하루를 마치지 않고 떠나니, 바르고—바르게 하여: 주자—길하다]"로, 이에 대해 백운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豫卦(䷏)가 변하여 解卦(䷧)가 된 것이다. 그 분쟁이 점차 해소되어 수고로움을 면하게 된다. 육이는 부드러운 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즐거움을 보존하지만 호응하지 않는다. 이는 그 마음이 안일하게 즐기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서 그 일에 있어서 어지러움의 기미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실솔(蟋蟀)」 편에 나오는 크게 즐기는[太康] 뜻이 있어서[39] 끝까지 그 무사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절개가 돌이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을 말하고, "날이 저물도록 기다리지 않으니"라는 것은 일찍 변별하는 것을 말한다. 坎卦가 큰 돌이 되고, 離卦가 절개가 되어, 절개가 돌과 같다. 곤괘와 리괘는 날이 저무는 것이다.[40]

백운의 주석을 보면 맨 처음 효변을 '모지모괘(某之某卦)'라 하면서 효변하여 변한 지괘의 괘상을 표시했다. 이는 다른 효변학파들과 동일하다. 백운은 본괘와 지괘를 함께 살펴서 종합적으로 효사를 해석한다. 지괘인 해괘의 괘의로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하고는 본괘 육이효의 자리[位]와 응(應)으로 즐거

39) 『詩經・蟋蟀』. "無已大康, 職思其憂. 好樂無荒, 良士休休."
40) 『상의점법』, 226면. "豫之解䷧, 其紛漸釋而免乎勞也. 六二, 居柔保豫而无應, 是其心不以逸豫爲樂, 而能防其事紛之微, 有蟋蟀太康之意, 可以終保其无事太平也. 介于石, 言其操心之堅, 不終日, 言其辨之枚早也. 坎爲大石, 离爲介, 介于石. 坤离爲終日."

움을 말하고, 『시경 실솔(詩經・蟋蟀)』 편을 인용하여 무사태평을 논한다. 한편 지괘인 解卦(䷧)의 하체인 坎卦(☵)와 互卦인 離卦(☲)를 가지고 '介于石'을 해석하고, 본괘의 곤괘와 지괘의 互離로 '不終日'을 풀이한다. 이처럼 백운은 본괘와 지괘의 상호 연결과 호괘를 이용하여 효사를 해석함을 알 수 있다. 하빈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41]

> 六二는 豫卦(䷏)가 변하여 解卦(䷧)가 된 것이다. "절개[介]"는 辨別의 뜻이고 "돌[石]"은 물건 중에 견고하고 강한 것으로 흙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질이 변별을 위주로 한다. 『禮記』에 "석경소리는 단단하고 치밀하니 단단하고 치밀함으로 변별을 세우게 한다."[42]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六二는] 홀로 中正한 행동으로 제재하고 변한 괘체의 견고함으로 거듭하니[重以變體之堅][43] 마음이 初六・六三의 陰邪한 자질과는 判然히 상반된다. (…) 六二는 한 괘체가 다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 진실로 날을 마치지 않는 상이 있다. 그러나 六二는 고요함인 坤으로 잠복하는 坎이 있고 艮으로 그쳐서[坤靜坎伏 艮以止之][44] 中正의 덕으로 편안한 자이므로 반드시 위에 끌리지 않아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바름"이다.[45]

하빈 역시 효변설에 입각하여 본괘와 지괘를 종합적으로 읽고 효사를 해석한다. 백운과 같은 점은 지괘인 解卦(䷧)의 하체인 坎卦(☵)로 잠복함을 이끌어 내고, 다른 점은 본괘에서 상체인 艮卦(☶)로 그침을 말하여 중정의 덕을 이끌어 내는 점과 지괘의 호괘인 리괘를 말하지 않는 점이다. 다산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41) 하빈과 이어지는 다산의 견해는 이창일, 앞의 글을 참고했음을 미리 밝힌다.

42) 『禮記』 樂記에 "石聲磬, 磬以立辨, 辨以致死."라고 하였는데, 鄭玄 注에 "磬當爲罄字之誤也."라고 하였다. 罄은 "形容聲音堅致"의 뜻이다.

43) "重以變體之堅"은 六二가 변하면 豫卦의 下體가 坎(☵)이 되는데, 坎(☵)은 「說卦傳」 11장에 "爲堅多心"이라고 하였다.

44) "坤靜坎伏 艮以止之"는 豫卦의 六二는 下卦인 坤(☷)에 속하며 之卦로 볼 때 解卦의 下卦인 坎(☵)에 속한다. 또 互卦로 볼 때 下卦인 艮(☶)에 속한다.

45)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是爲豫之解也. 介者, 辨別之意, 石則物之堅剛, 而不混土者, 故其性主於辨. 禮曰: '石聲磬, 磬以立辨 是也. (…) 獨其制行之中正, 重以變體之堅, 心與初三陰邪之質, 判然相反, (…) 而二居一體之未極, 固有不終日之象也. 然二之坤靜坎伏, 艮以止之, 以安其中正之德者, 必不援上而妄動, 則此所謂貞也.'" 신후담, 『河濱先生全集』, 아세아문화사, 2006.

> 이것은 豫卦가 解卦로 변하는 경우이다. 해괘는 臨卦(䷒)로부터 왔는데 임괘의 初位의 剛은 본래 復卦(䷗)가 초위에 있던 一陽의 군자이다. 복괘로부터 나아가서 임괘가 되면, 한 개의 剛이 와서 그 군자를 누르고【2가 1을 누름】, 음 하나가 그 두 개의 양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임괘의 하괘인 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임괘의 초위의 강을 제거하고 보면, 흡사 坎卦이 형태가 될 것인데【태에서 아래가 터지면 곧 감】 坎은 곧 돌이 된다. 이는 임괘의 初剛이 감의 돌구덩이 사이에 끼여 있음이니【감의 음이 구덩이가 됨】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여기 介란 사이에 끼인 것을 뜻한다.[46]

본괘 예괘의 육이효가 변하여 지괘 해괘로 된다는 것은 앞 두 사람과 같다. 그러나 다산은 효변으로 생긴 해괘는 臨卦(䷒)로부터 왔다고 한다. 말하자면 본지괘와 무관한 제3의 새로운 괘—辟卦—를 등장시켜 예괘 육이효를 또 다른 측면에서 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해석방법으로 다산의 역리사법 가운데 推移[47]에 근거를 둔 것이다. 효변과 추이를 결합하여 효변설을 설파한 사람은 다산뿐인 듯하다.[48] 예괘 육이효 분석만으로 세 사람의 효변설의 동이점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 분석으로 하빈과 백운보다 다산이 좀 더 독특한 효변설을 주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변화의 열쇠—先後天(선후천의 확대적용)

백운 역학의 특색은 점법이나 효변설 이상으로 소강절 선후천설의 폭넓은 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백운은 자신의 역리를 전개하는 길목마다 선후천을

---

46) 茶山 丁若鏞, 『周易四箋』. "此豫之解也. 解自臨來,【一之四】 臨之初剛, 是本復一陽之君子也. 進而爲臨, 則一剛來壓,【二壓初】 一陰乘之,【臨下兌】 厲之至也. 去初剛而觀之, 則恰成坎卦,【兌下坼則坎】 坎則爲石,【義見下】 是臨之初剛介于坎石之窞也.【坎之陰爲穴】 豈能自安哉. 介者, 間厠也." 방인・장정욱 옮김, 『역주 주역사전』, 소명출판사, 2007, 60면.

47) '推移'는 주역의 64괘를 크게 양분하는 데서 생겨났다. 다산은 주역의 64괘는 동등하지 않고, 辟卦와 衍卦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벽괘에서 연괘가 생겨 나온다고 한다. 벽괘는 본래 12달을 상징하는 12消息卦를 의미한다. 그러나 벽괘는 12개이지만, 1년 12달에는 日月의 운행 편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閏月이 만들어지므로, 이를 나타내는 2개의 閏卦를 더해야 비로서 易法과 曆法이 부합되므로 벽괘는 결국 14개가 된다고 한다. 각 벽괘는 연괘를 낳는데, 여기에는 일왕일래(一往一來)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두 개의 윤괘는 中孚卦(䷼)와 小過卦(䷽)로 따라서 다산의 경우 14벽괘이다.

48) 이창일, 앞의 글, 60-62면.

배치한다. 선후천을 자신의 이론 분석 틀이나 논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종국에는 모든 역리를 선후천으로 수렴시킨다. 백운의 주장을 아래에서 (1)-(3)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세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선후천과 태극, 오행 및 理氣와 象數

첫째, 그의 태극관을 보자. 태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역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란 기의 움직임의 시작이다. 태극이 양의 낳고, 양의란 음양이다. 태극이란 천지의 원기이다.[49]

백운은 태극을 氣로 봄으로써 태극을 理로 보는 주자학과 선을 긋는다. 백운의 기와 태극관에는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태극을 천지의 元氣라 한다. 또 陽氣를 천지의 원기, 陰氣를 客氣[50]라 하는가 하면 태극을 기의 始動 혹은 始生이라 한다. 태극을 원기로 보는 것은 이해하나 양기라고 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는 또 "태극은 양이다. 기는 움직임을 본성으로 하고 (…) 단양단음은 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음양이 합하여 기가 이루어진다. (…) 태극이 움직이면 굴신이 있어서 음기가 생기니 현묘한 이치이다. 두 가지[음양]가 합하여 물건이 이루고, 두 가지가 짝하여 물건이 생겨나며 (…) 음양이 합하여 기를 이루니 이것을 하늘의 기라 이른다[太極, 陽也. 氣以動爲性 (…) 單陽單陰, 氣之未成者也, 陰陽合以成氣 (…) 太極動而有屈伸陰氣生焉, 玄妙之理, 二者相合而成物, 二者相配而生物, (…) 陰陽相合而成氣, 此謂天之氣也]"[51]라 한다. 이런 일련의 백운의 주장 가운데 음양과 태극에 대한 논리적 결함을 엿볼 수 있다.[52]

---

49) 『상의점법』, 13면. "易有太極, 太極者, 氣之始動也. 太極生兩儀, 兩儀者, 陰陽也. 太極者, 天地之元氣也."

50) 심대윤, 『沈大允全集』 2책 論語 堯曰 104면. "陽氣者, 天地之元氣也. 陰氣者, 客氣也."

51) 심대윤, 『沈大允全集』 1책 福利全書 131면. 최정준 등은 이런 백운의 음양관에 대해 음이 양에 종속되는 양우위적 음양관을 가졌다고 한다. 최정준・오동하 공저, 앞의 글, 2018, 143-147면 참조.

52) 單陰 單陽은 음양의 기가 아니라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태극을 원기라 하고 양기라 하는데, 원기가 양기만인지 의문이다. 원기란 음양 미분화의 태초의 기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태극=양

둘째, 선후천과 太極四象과 五行 및 形氣에 대한 그의 말이다.

> 선천에 있는 太極四象과 후천에 있는 오행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 선천의 氣는 곧 후천의 기이고, 선천의 形은 후천의 형이다. 선천은 후천을 통괄하고 후천은 선천을 완성한다. 선천은 順生하여 體가 되고 후천은 逆克하여 用이 된다. 선천은 커서 하나이고 후천은 작아서 번다하다.53)

백운은 태극사상을 선천에, 오행을 후천에 배속하면서 둘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한다. 이는 주자가 지적한 바 있는 「선천도」의 '1-2-4-8'의 수리와 「태극도」의 '1-2-5'의 수리가 물리와 상수의 측면에서 같다고 한 점과 유사하다.54) 백운은 선천은 기, 후천은 형이며 선천은 후천을 관장하고 후천은 선천을 이어 만물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선후천을 순역과 생극 및 체용과 대소[一과 繁]로 구분하면서 나아가 "천하의 이치에는 모두 二重이 있으니, 선천과 후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선후천을 평가한다.55)

셋째, 선후천과 理·氣·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氣에는 數가 있고 形에는 理가 있으며, 數에는 時가 있고 理에는 道가 있으며, 時에는 命이 있고 道에는 教가 있다. 선천은 기와 수를 주관하고 후천은 형과 리를 주관한다. 기가 있으면 그런 리가 있으니, 기가 없다면 리가 어찌 붙어있겠는가.56)

기는 단양인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백운에서 태극과 음양의 기에 대한 논설에는 일관된 느낌이 부족하다.

53) 『상의점법』, 16면. "夫先天有太極四象, 後天有五行相合而爲一. 先天之氣卽後天之氣也, 後天之形卽先天之形也. 先天統後天, 後天成先天, 先天順生而爲體, 後天逆克而爲用. 先天大而一, 後天小而繁."

54) 주자는 先天圖에 나타난 1-2-4-8의 가일배법과 太極圖에 나타난 1-2-5의 음양오행원리는 物理와 象數의 측면에서는 같고 大小와 詳略의 차이만 있다고 한다. 朱熹, 「答黃直卿」(3), 『주자대전』 권46. "蓋合下規模不同, 而太極終在先天範圍之內, 又不若彼之自然, 不假思慮安排也. 若以數言之, 則先天之數自一而二, 自二而四, 自四而八, 以爲八卦: 太極之數亦 自一而二, 剛柔自二而四, 剛善·剛惡·柔善·柔惡. 遂加其一, 中以爲五行, 而遂下及於萬物. 蓋物理本同而象數亦無二致, 但推得有大小詳略耳."

55) 『상의점법』, 16면. "先天之中有先後天焉, 後天之中有先後天焉. 必一生一克一順一逆一體一用一綱一目, 然後能成物焉, 能有用焉. 故曰天下之理皆有二重焉者, 先後天之謂也."

56) 『상의점법』, 15면. "氣有數, 形有理, 數有時, 理有道, 時有命, 道有教. 先天主氣數, 後天主形理. 夫有氣斯有理, 無氣理安所附."

여기서 그를 理氣論의 입장에서 판별하면 氣論者임을 알 수 있으니 태극을 기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수를 중시함은 기와 수를 선천의 영역으로 형과 리를 후천의 영역으로 배분함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백운의 태극과 氣數形理에 대한 논의에 착안하여 백운의 역학을 '形氣生成論'으로 집약한 연구도 있다.[57]

넷째, 그는 자신의 역학에서 象數를 理氣보다 더 중시함을 다음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數를 버리고 氣를 헤아린다면 거의 卦가 없을 것이고, 象을 버리고 理를 찾는다면 거의 易이 없어질 것이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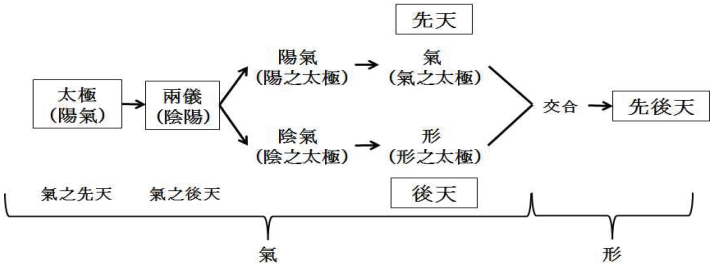
윗글로 학파를 단순 구분하자면 백운은 象數派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상수파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義理—특히 中, 忠恕, 福利, 心性, 道理 등—를 중시한다.

(2) 선후천과 「하도낙서」 및 「선천원도」와 順逆

첫째, 백운은 선후천의 적용을 「하도」와 「낙서」로 확장한다. 하락이론과 선후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릇 기와 리는 볼 수가 없다. 반드시 수로 기를 헤아리고 형으로 리를 관찰한

57) 최정준・오동하 공저, 앞의 글, 2018; 오동하, 앞의 글 참조. 오동하, 앞의 글, 28면에서 형기생성론의 입장에서 태극 양의 사상의 선후천 구조를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낸다.



58) 『상의점법』, 21면. "舍數而推氣則幾乎無卦矣, 舍象而尋理則幾乎無易矣."

다. 여기서 「하도낙서」가 나왔다. 「하도」와 「낙서」는 수와 함께 간다.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이다. 「하도」는 圓-陽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낙서」는 네 모[方]-陰으로 땅을 상징한다.59)

백운은 기와 리는 보이지 않기에 반드시 수와 형[象]으로 알 수 있고 여기서 「하도낙서」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사실 하락의 형상과 수를 통해 천지의 理氣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하락은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도」를 선천-圓-陽-하늘에, 「낙서」를 후천-네모-陰-땅에 배분한다. 말하자면 하락에까지도 선후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백운의 폭넓은 선후천관을 피력한 것이다.

둘째, 그는 선후천, 복희역과 문왕역 및 기수와 상리 및 순역을 언급하며 易의 본질에까지 언급한다.

> 상이 있은 후에 「하도」가 있고, 「하도」가 있은 후에 획이 있고, 획이 있은 후에 괘가 있고, 괘가 있은 후에 爻가 있고, 효가 있은 후에 辭가 있다. 복희의 획괘는 수를 위주로 그 기를 헤아리고, 문왕역은 상을 위주로 그 이치를 관찰한다. 수를 위주로 하면 상이 그 속에 있고, 상을 위주로 하면 수가 그 속을 관통한다. 대개 선천의 업적은 후천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象理는 氣數에서 생기고 상리에 밝으면 기수는 따라서 알게 된다. 기수가 상리를 낳는 것이 순한 것이고, 상리로 기수를 헤아리는 것은 거슬리는 것이다. 순한 것은 선천이고 거슬리는 것은 후천이다. 역은 후천의 학문이기에 거꾸로 셈하는 것이다.60)

윗글을 정리하면, 천지만상[象]을 보고 「하도」를 그리고, 「하도」를 통해 음양의 획[⚊, ⚋]을 긋고, 세 획이 모여 소성괘, 육획이 모여 대성괘가 되고, 효에는 효사가 있다. 선천의 업적은 후천에 드러난다. 그러기에 선천의 복희역은 無文字易으로 氣와 數가 바탕이고, 후천의 문왕역은 문자역이기에 象과

59) 『상의점법』, 16-17면. "夫氣與理者, 不可見也. 必因數以推氣, 因形以察理, 於是乎河洛之圖書出焉. 圖書數與行也. 圖先天也, 書後天也. 圖圓陽象天, 書方陰象地."

60) 『상의점법』, 18면. "有象然後有圖, 有圖然後有畫, 有畫然後有卦, 有卦然後有爻, 有爻然後有辭. 伏羲之畫卦也, 以數爲主而推其氣. 文王之作易也, 以象爲主而察其理. 以數爲主以象在其中矣, 以象爲主而數貫其中矣. 夫先天之功見於後天, 故象理生于氣數, 明乎象理而氣數從而可知矣. 氣數生象理順也, 以象理推氣數逆也. 順者先天也, 逆者後天也. 易後天之學也, 故逆數也."

理가 바탕인데, 상리는 기수에서 생기고 상리를 알면 기수는 따라서 알게 된다. 이는 후천역[象理]을 알면 선천역[氣數]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수 즉 선천이 상리 즉 후천을 낳는 것은 순한 것이고, 상리로 기수를 헤아리는 것은 거슬리는 것이다. 順은 선천이고 逆은 후천이니, 후천역 즉, 『주역』은 거꾸로[거슬러] 셈하는 것[逆數][61]라 한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이 있다. 그가 말한 "順은 선천이고 逆은 후천이다. 易은 후천의 학이기에 거꾸로 셈하는 것"이란 부분은 「설괘전」 3장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 易逆數也"를 연상시키지만 둘이 말한 순역의 의미가 다르다. 또한 이 부분을 말한 소강절과 이를 해설한 『역학계몽』[62]과도 다른 백운만의 시각임에 유의해야 한다.[63] 나아가 그는 강절의 「선천원도」 8괘를 좌우 4괘씩 이등분하여 선후천으로 나누고, 그 운행의 엇갈림을 "선천과 후천이 교차하여 합하는 뜻이다[先後天, 交合之義也]"라고 선후천의 외연을 넓혀나간다.

(3) 선후천과 『주역』 64괘, 義理 및 효변

첫째, 백운은 선후천을 아래와 같이 『주역』 64괘와 밀접하게 관련짓는다. 먼저 상경, 하경과 乾坤坎離에 대해 말한다.

> 『주역』 상경은 선천이고 하경은 후천이다. 상경이 30괘이고 하경이 34괘인 것은 선천의 수는 적고 후천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 상경은 乾卦, 坤卦에서 시작하여 坎卦, 離卦에서 그치니 곧 선천의 네 개의 바른 자리이다. 후천 감리의 자리는 선천 건곤의 자리에서 선천과 후천이 교합하여 기가 형으로 화하는 시작이 된다. 고로 水火란 물건은 형기 속에 섞여 선후천의 물건이 되어 변화를 주관하

61) 「설괘전」 3장. "易, 逆數也"

62) 『易學啓蒙』, 1051면. "圓圖之左方, 自震之初爲冬至, 離兌之中爲春分, 以至於乾之末而交夏至焉, 皆進而得其已生之卦, 猶自今日而追數昨日也. 故曰數往者順. 其右方自巽之初爲夏至, 坎艮之中爲秋分, 以至於坤之末而交冬至焉, 皆進而得其未生之卦, 猶自今日而逆計來日也. 故曰知來者逆. 然本易之所以成, 則其先後始終, 如橫圖及圓圖右方之序而已. 故曰易逆數也." 이에 대해서는 조희영,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철학논총』 제81집, 새한철학회, 2015, 263-266면 참조.

63) 위 인용문에 이어 백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伏羲之畫法乎先天而順數, 自上而下畫, 一奇以象天, 重畫一奇以象人, 又畫一奇以象地, 三才之道備而成卦名之曰乾" 복희역은 획괘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긋는다. 이것을 선천으로 順數라고 한다. 이는 통행본 역괘가 아래에서 위로 획을 긋는 것과 반대다.

는 저울이며 이 때문에 감리는 선천의 끝이 되면서 후천의 시작이 되고, 旣濟卦, 未濟卦는 후천의 끝에 있으면서 선천의 시작이 된다.64)

백운은『주역』상경 30괘는 선천이고, 하경 34괘는 후천이라 한다. 선천 상경 30괘는 1, 2번 건괘(䷀), 곤괘(䷁)에서 시작하여 29, 30번 감괘(䷜), 리괘(䷝)에서 마치는데 이 네 괘가 선천의 네 개의 바른 자리[四正位]라 하면서 동시에 감리와 水火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四正位'에서 말하는 건곤감리는 소성괘 건(☰), 곤(☷), 감(☵), 리(☲)이다. 이는 강절의 「선천원도」를 두고 한 말이다. 감리괘는 기가 형으로 화하는 시발점이 되니 감리괘의 구성물인 수화는 선후천의 공유물이 되면서 동시에 변화를 주관하는 저울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감(䷜), 리괘(䷝)는 선천의 끝이자 후천의 시작이 되며, 기제괘(䷾), 미제괘(䷿)는 후천의 끝이자 선천의 시작이 된다고 한다. 이어서 후천인 하경에 대해 말한다.

하경은 咸卦, 恒卦에서 시작하여 기제, 미제괘에서 마친다. 함・항괘의 兌艮震巽은 선천의 네 귀퉁이에 있는 괘이다. 후천의 태는 만물이 성공하는 때이고, 진은 만물이 나서 피어나는 자리이며, 간은 만물의 시작과 끝의 자리이며, 손은 만물이 번영하는 실마리가 된다. 선천은 낳는 것을 주관하고 후천은 성취하는 것을 주관하니 태간은 하경의 시작이고 진손은 그 다음이다. 상하경 두 편의 차례가 모두 반대로 서로 연결되어 한 번 순하고 한 번 거꾸로 인 것은 선천과 후천이 서로 짝으로 운행하기 때문이다.65)

하경은 31번 함괘(䷞), 32번 항괘(䷟)에서 시작하여 63번 기제괘, 64번 미제괘에서 마치는데, 함・항괘의 구성물인 소성괘 태(☱), 간(☶), 진(☳), 손(☴)은 선천의 네 귀퉁이 있다고 한다. 후천은 성취를 주관하니 하경의 첫 시

64)『상의점법』, 21-22면. "上經先天也 下經後天也 上經三十卦, 下經三十四卦, 先天之數小, 而後天之數多也. 上經首乾坤, 而止坎離卽先天之四正位也. 後天坎離位於先天乾坤之位爲先後天交合, 而氣化形之始. 故水火之爲物雜乎形氣之間, 爲先後天之物, 而主變化之權. 是以坎離爲先天之終, 而後天之始也."

65)『상의점법』, 22면. "下經自咸恒終二濟, 咸恒之兌艮震巽, 是先天之四維位也. 後天兌爲萬物成功之時, 而震爲萬物發生之位. 艮爲萬物終始之地, 而巽爲萬物繁華之序. 二篇之序, 皆以反對相繼, 而一順一逆者, 先後天相配而行也."

작인 함괘는 태(☱, 성공), 간(☶, 始終)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은 항괘로 진(☳, 生發), 손(☴, 繁華)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부분은 소성괘 기준이다. 64괘의 순서가 8괘(乾坤坎離震艮巽兌)를 제외하고 56괘는 모두 2개씩 짝으로 반대괘[괘를 180도 뒤집음]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백운은 선후천이 짝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64괘와 선후천의 관련성에 대해 말하는가 하면, 「계사전」 상 1장에 나오는 건곤에 대해서는 "건은 선천이니 기의 태극이고, 곤은 후천이니 형상의 지극함[기준]이다[乾爲先天, 氣之太極, 坤爲後天, 形之極.]"[66]라고 하여 건곤을 선후천과 태극 및 형상과도 대비한다.

둘째, 백운의 선후천에 대한 관점은 구체적인 괘효사를 독해하는 데에도 나타나고, 心·性·情·道를 비롯한 중용과 충서 등 의리를 밝히는 데도 나타난다. 다음 몇 가지를 보자.

> ① 무릇 괘사는 불변하는 큰 몸통[핵심]을 말한 것으로 선천이고, 효사는 변하는 작은 항목으로 후천이다. 따라서 괘가 부동이면 괘사로 점치고, 동하면 효사로 점친다. 彖은 한 괘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여기에] 이름[名]과 의미[義]와 道와 用 네 가지가 있는 것은 태극에 사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선천의 수가 적은 것이다. 爻는 육효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여기에] 變, 時, 位, 情, 象, 辭 여섯 가지가 있는 것[67]은 괘에 육효가 있어서 만물의 실정을 헤아리는 것과 같으니 후천의 수가 많은 것이다.[68]
>
> ② 无妄卦(䷘)는 선천이 후천으로 변한 것이다. 성실함[誠]이란 선천이며, 밝음으로부터 성실함[69]이란 선천이 후천으로 변한 것이다. 中庸은 후천이며, 忠恕란 후천이 선천으로 변한 것이다. (…) 그 大體로 말하면, 性은 선천이고, 道는 후천이다. 단지 도를 위주로 하여 말하면, 忠은 선천이고 恕는 후천이며, 충서는 선천이고 중용은 후천이다.[70]

---

66) 『상의점법』, 733면.

67) 백운이 밝힌 '讀易十法'으로 1卦名, 2卦義, 3卦道, 4卦用, 5卦變, 6卦位, 7卦時, 8爻位, 9爻象, 10繫辭이다. 이 중 앞의 넷을 선천, 뒤 여섯을 후천으로 본 것이다. 오동하는 '讀易十法'을 이 책이 표방하는 義理의 영역으로 본다. 오동하, 앞의 글, 179면 그림 참조.

68) 『상의점법』, 30-31면. "夫彖辭者, 言其大體之不變先天也, 爻辭者, 言其小節之變後天也. 故卦靜則占彖辭, 動則占爻辭. 夫彖釋一卦之義, 而有名義道用四者, 猶太極之有四象, 而先天之數少也. 爻釋六爻之義, 而有變時位情, 象辭六者, 猶卦之有六爻, 以測萬物之情, 而後天之數多也."

69) 『中庸章句』 21장.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70) 『상의점법』, 203면. "无妄先天之後天也. 誠者先天, 而自明誠者, 先天之後天也. 中庸後天, 而忠恕者,

③ 본성은 저절로 얻은 것이니 많고 적으며 더하고 덜어낼 차이가 없고, 힘쓸 것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말하지 않았다. 노력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본성은 선천이고 마음은 후천이며, 선천은 행위 함이 없고 후천은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이 품부된 것을 얻었지만 도심과 인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짐승이 새끼를 낳음에 부리로 쪼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본성의 '참됨[誠]'에서 나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노력은 반드시 현실[情]에서 시작하니, 마음[心]은 선천이고 현실[情]은 후천이다.71)

①에서는 괘사는 선천이고 효사는 후천이라 하고 彖[卦]에는 讀易十法 가운데 名, 義, 道, 用 넷이 있어 선천에 속하여 수가 적고, 효에는 독역십법 중 變, 時, 位, 情, 象, 辭 여섯이 있어 후천이라 하여 수가 많다고 한다. ②에서는 무망괘(䷘)를 들어 선후천을 말하고, 忠恕와 中庸 및 性과 道를 들어 선후천의 호환과 변화를 말하고 있다. ③에서는 심성을 선후천으로 구분하고 마음과 실정[心·情] 즉 현실을 선후천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셋째, 백운은 자신의 효변설에 의한 점법과 용9 용6에도 선후천을 다음과 같이 개입시킨다.

① 무릇 양이 변하면 음이 되고, 음이 변하면 양이 된다. 가령 점을 쳐서 건괘(䷀) 초구가 동하는 점을 만나면 [건괘가] 변하여 구괘(䷫)가 되니 (…) 이 또한 선후천 체용의 뜻이다.

② 무릇 용9 용6은 선후천이 사귀어 합하여[交合] 수와 이치의 쓰임이 된다.72)

상기 ①에서는 본괘가 효변하여 지괘가 된 것을 선후천 체용의 의미로 받아드린다. 즉 본괘는 체로 선천이고, 지괘는 용으로 후천으로 보는 것이다. ②에

後天之先天也. (…) 言其大體, 則性先天也, 道後天也. 單主於道而言之, 則忠先天也, 恕後天也, 恕忠先天也, 中庸後天也."

71) 『상의점법』, 95면. "夫性也者, 得之自然, 无多寡加減之殊, 而无所用力焉, 故聖人不言也. 其所用工而爲教爲學者, 在乎心也. 性先天也, 心後天也, 先天无爲而後天用力也. 心之得於稟賦而有道心人心之異者, 如禽獸之孳將啄抱, 出於性之誠而不可卒化. 故聖人之用工, 必自情始焉, 心先天也, 情後天也. 喜怒哀樂發而中節, 則心自正. 心正則性得其正矣."

72) 『상의점법』, 43-44면. ①"凡陽爻變則爲陰, 陰爻變則爲陽, 假令筮遇乾卦初九動, 而變則爲垢. 乾爲本卦垢爲之卦 (…) 此亦先後天體用之義也."; ②"夫用九用六者, 先後天交合而爲數與理之用."

서는 건괘의 용9와 곤괘의 용6을 선후천이 서로 사귀어 합한 것이라고 한다.

위 (1)-(3)에서 본대로 백운은 선후천으로 자신의 역리를 전개하여 역도를 넓혀 나간다. 이와 같이 백운의 변화무쌍한 선후천관에서 필자는 강절역의 조선식 변용의 사례를 목도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강절역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각자 자득한 것을 개인적인 역설로 확대 주장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고 특히 말기에 가면 더욱 심하니 이른바 '후천개벽설' 등이 그것이다. 당시 학자들의 강절역에 대한 천착은 다산도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를 통해 백운이 보는 선후천관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 답은 선후천은 우주조화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한 말 "선후천이란 천변만화의 관건이다."[73]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말하자면 백운에 있어서 '선후천이란 천지자연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역을 해석하는 관건'이라는 것이다. 주자가 태극을 "조화의 지도리, 만물의 근본[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이라 하여 易理와 性理의 極處로 삼았듯 백운도 선후천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3. 나가면서

이상에서 백운 역학의 특색 여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인 새로운 점법, 효변설, 선후천설을 살펴봤다. 사실 백운 역학의 특색을 여섯이라거나 셋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의 역학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몇 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학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셋을 살폈는데, 일부 거칠게 다룬 부분도 있었다. 이 셋을 간단히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가 새로 발명한 점법에 대해서이다. 그가 점법을 발명한 직접적인 계기는 『左傳・襄公9年』(B.C. 564) '艮之八' 때문이다. '艮之八'의 문제는 역학자들에게 점법발명의 촉매제가 되게 했으니 다산과 백운이 그렇고 고형도 마찬가지다. 백운점법은 효불변, 한 효변인 경우는 주자점법과 같으나 두 효 이상 변할 경우에는 책수 '4'와 나머지 '8'을 개입시켜 풀이한다. 즉 변한 효

73) 『상의점법』, 16면. "先後天者, 萬化之關鍵也."

의 9, 6의 수를 합산하고 4로 빼서 남는 수가 5, 6이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여[周而復始] 8에 그치는 효로 점친다. 남는 수가 바로 8이면 지괘 괘사로, 7이면 본괘 괘사로 점친다. '8'인 이유는 건4 곤4의 합이기 때문이라 한다. 다산은 효불변이나 한 효변의 경우와 건곤괘 용9 용6만 『주역』으로 점칠 수 있고 나머지 다효변의 경우는 하나라 상나라의 점법[夏商之舊法]으로 점쳐야 한다고 한다. 시초점에서 다효변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점단하기 위해 다산은 11,520개의 죽책으로 변효 하나를 구하는 법을 새로이 발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11,520개의 대나무가 필요하니 지난한 방법이다.

다음은 '효변설'에 대해서이다. 효변설이란 효가 변하는 것으로 노양9는 음으로, 노음6은 양으로 효변하여 변괘가 되는 것을 말하고, 변효를 중심으로 점단한다. 효변설은 다산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앞 세대인 하빈도 주장했고 뒤 세대인 백운도 주장했다.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세 명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효변'이라는 역리에서 만난 것은 큰 우연이라 할 수 있다. 효변설이 설령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학설 형성은 조선에서 자생한 '효변학파'라 부를 만하다. 효변설만 두고 본다면 하빈과 백운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추이'도 함께 보는 다산과는 차이가 있다. 천주교를 대하는 자세도 이와 비슷하다. 하빈과 백운은 공서파이고 다산은 그 반대이다.

백운의 학설에 나타난 선후천을 보면, 자신의 모든 역리에 소강절의 선후천을 등장시킨다. 백운은 선후천으로 태극음양오행과 氣數와 象理를 논하는데, 태극과 기에 대한 논설에서는 미진한 면이 있다. 「선천원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64괘를 나름대로 분석한다. 아울러 선후천과 연결하여 중용과 충서를 말하고 심성정을 선후천의 관점에서 논한다. 河洛까지도 선후천의 영역으로 귀결시킨다. 선천역에 경도된 백운 역학은 효변학파 다른 두 선배와도 다른 백운만의 특색이다. 허나 백운 같은 사람들에게 소강절의 선후천이 안식처이자 희망봉인지는 몰라도 기울어진 조선을 바로 세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백운을 평하기를 '조선사상사의 돌출적 존재'라거나 '19세기 한 실학자—

사상사의 이단아'라고 한 것은, 백운의 삶의 여정이 조선사상사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너무나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걸출한 학문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대표적 역학서인 『주역상의점법』도 그렇게 완성됐다. 백운은 이 책을 통해 조선역학에 귀중한 몇 가지 이론—점법과 효변설, 새로운 선후천관 등—을 제시했다. 필자의 소임은 이 셋을 소개, 분석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언급 못한 부분, '利를 통한 易理', '독역십법', '효변학파의 효변설 비교', '백운점법으로 춘추시대 官占 연구', '백운의 수리론' 등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국어』, 『논어』, 『맹자』, 『시경』, 『易象義』, 『예기』, 『주역』, 『주자대전』, 『중용장구』, 『춘추좌전』.

邵康節, 「皇極經世書」, 『性理大全』, 학민문화사, 1989.
沈大允, 「周易象義占法」, 『韓國經學資料集成』 116 易經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 출판부, 1997.
_____, 『沈大允全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아세아문화사, 2006.
丁若鏞, 「周易四箋」, 『韓國經學資料集成』 110 易經 2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 출판부, 1996.
朱 熹, 「易學啓蒙」, 『性理大全』, 학민문화사, 1989.

고형・이경지・용조조 지음,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김문용, 「심대윤의 복리사상과 유학의 세속화」, 『시대와 철학』, 제21권 3호(통권 5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1-32면.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방 인, 「丁若鏞의 『春秋官占補註』의 '夏商之舊法'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出土易學자료의 관점에서 본 『連山』・『歸藏』의 筮法」, 『退溪學報』 제131집, 退溪學硏究院, 2012, 161-190면.
_____, 「춘추시대 官占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 『茶山學』 제2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209-240면.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茶山 丁若鏞 易學의 성립과정(3)—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5-61면.
손혜리, 「조선후기 지식인의 생업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대응—19세기 白雲 심대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1-63면.
신명종, 「『주역』 점서법과 현대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오동하,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沈大允의 易學思想硏究」, 동방문화대 박사학위논문, 2017.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周易)』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하며」, 『한국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37-67면.
임재규, 「정약용 효변설의 연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茶山學』 제2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332-358면.
張炳漢, 「沈大允 경학에 대한 연구 : 19세기 현실지향적 경학관의 일단면」,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白雲 沈大允의 『周易象義占法』에 대한 일고찰 : 19세기 天主學說에 대한 儒學의 대응과 극복의 관점에서」, 『韓國思想史學』 제33집, 한국사상사학회, 2009, 253-279면.
_____, 「沈大允의 『書經蔡傳辨正』에 대한 연구 : 大同의 實德・實用主義的 內聖・外王論과 福善・禍淫論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장정욱, 「『주역』의 구성체제와 역상의 상징체계 : 다산역학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정약용, 방인・장정욱 옮김, 『역주주역사전』, 소명출판사, 2007.
조희영, 「소강절 易數論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철학논총』 제81집, 새한철학회, 2015, 259-280면.
_____, 「訓民正音 制字解에 함유된 宋代象數易과 朝鮮易—『皇極經世書』, 『太極圖說』, 『易學啓蒙』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제184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123-147면.
주 희, 김진근 옮김, 『역학계몽』, 청계, 2008.
최정준・오동하 공저, 「백운 심대윤(白雲 沈大允)의 독역십법(讀易十法)에 관한 연구 : 爻位法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52집, 한국사상사학회, 2016, 303-333면.
_____, 「沈大允 形氣生成論의 역학적 구조」, 『栗谷學硏究』 제36집, 栗谷硏究院, 2018, 137-169면.

王植 撰, 李一忻 點校, 『皇極經世』, 北京: 九州出版社, 2003.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2.

「한국주역대전 DB」,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rsh/.

【Abstract】

The feature of Shim Daeyoon (沈大允)'s I-Ching in the *Juyeogsanguijeombeob* (周易象義占法)

Cho, Hie-Young*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as shown in Shim DaeYoon (沈大允)'s *Juyeogsanguijeombeob* (周易象義占法). First, it is a new invention of the law of Jeomseo (占筮). When 'hyo (爻)' is unchanged or one 'hyo' changed, it is the same as Jeomseo (占筮) of Zhūzǐ (朱熹), but when two or more changed, it is interpreted through the number 4 and 8. Second, it's the theory of Hyobyeon (爻變說). It is said that the 'hyo (爻)' is the change, as Yangyhyo (陽爻, Nooyang (老陽) 9) is going to change Eumhyo (陰爻), Eumhyo (陰爻, noeum (老陰) 6) is going to change Yangyhyo (陽爻), and judge the Transformation-byeonhyo (變爻). Jeong Yakyong (丁若鏞) has already become known for his hyobyeon (爻變說). However, it is interesting for Joseon dynasty I-ching history that his previous generation, Shin hudam (愼後聃), and the later generation Shim Daeyoon (沈大允), independently claimed the same effect in different time and space.

Third, it is the theory of Seonhucheon (先後天說). He places an after-the-post on every place where he develops his theory (Seonhucheon (先後天說)). He uses this theory as a classification criterion to distinguish his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or logic. At the same time, he eventually converges all theories here, that's 'Seonhucheon (先後天)'.

Keywords: Shim DaeYoon (沈大允), *Juyeogsanguijeombeob* (周易象義占法), a new invention of the law of Jeomseo, Hyobyeon, Seonhucheon.

접수일: 2018.12.27.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Post-doc,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